

# 金海茂溪里支石墓의 出土品

——靑銅器를 伴出하는 新例——

金 元 龍

- |           |              |
|-----------|--------------|
| 一. 序 言    | 四. 茂溪里文化의 性格 |
| 二. 遺蹟의 構造 | 五. 結 言       |
| 三. 發見遺物   |              |

南式支石墓에서 靑銅器가 發見된 例는 全南高興郡雲堡里에서의 細形銅劍一片이 南韓에서 唯一한 例고 北韓에서는 黃海道鳳山郡內에서 二次大戰後세로 發見된 南式支石墓에서 나왔다. 여기 報告하려는 것은 南式支石墓로서는 세번째의 銅製品을 낸 金海茂溪里의 破壞된 一支石墓의 例이다. 이제 見聞과 遺物實查를 土臺로 해서 그 遺物에 對한 考察을 加하고 아울러 이 機會에 南韓에 있어서의 所謂 支石墓社會나 文化를 檢討하고 遺物을 通해본 茂溪里文化를 살펴볼까 한다.

## 一. 序 言

洛東江 江口가까운 慶南金海郡長有面茂溪里에서 今年五月九日 川石으로 쌓은 小石室墓가 土地所有者인 許某氏에 依해 發掘되어 石劍, 石鏃, 銅鏃, 土器類等 遺物이 採集되었고 이 事實은 이튿 5月 10日附 釜山日報에 報道된바있다. 其後 遺物全部는 慶南道廳으로 移管되었으나 이러한 發見事實은 中央에 알려지지 않고 本人이 이 事實을 알게 된것은 今年 9月 考古美術 第三卷八號에 실린 朴敬源氏의 「慶尙南道內의 最近出土遺物」이라는 글을 통해서였다. 卽 釜山市 慶南高等學校校長인 朴敬源氏는 그 報文속에서 金海, 蔚山, 三浪津 三個處에서 發見된 遺物에 對한 概報를 쓰면서 이 茂溪里支石墓遺物을 「金海長有面 豎穴石室과 遺物」이라

는 題下에 石劍의 寫眞 및 石劍의 實測圖와 함께 簡單히 紹介하고 있다.

나는 9月 22日 釜山市의 道文化課에 保管되어 있는 이 遺物들을 實見하고 다시 出土現場을 調査하고 發掘者의 한 사람인 許氏夫人으로부터 發掘當時의 事情을 들었다.

至今까지 南方式支石墓에서 靑銅器가 發見된 것은 1926年 全南高興郡 豆原面雲垈里에서의 銅劍破片一例(梅原藤田:1947) 뿐이며 支石墓의 時代가 金屬使用期라고는 一般的으로 認定되고 있기는 하나 至今 여기서 確實한 靑銅鑊을 發見하게 된 것은 支石墓研究上 매우 重要한 資料라 아니할 수 없다. 또 함께 發見된 石劍도 그 鐔部와 劍把頭部의 斗出이 매우 甚해 從來 보지 못하던 形式이며 이러한 諸點에서 이미 朴敬源氏가 見聞錄을 發表하기는 하였으나 여기서 좀더 細部에 對하여 考察을 해볼까하는 바이다. 다만 朴敬源氏나 本人이나 모두 이 方面에는 전혀 門外漢인 發掘者들의 이야기를 듣고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石室의 實態나 遺物의 出土狀況에 對해서는 不確實한 點이 많으며 이것은 遺物의 性格으로 보아 매우 遺憾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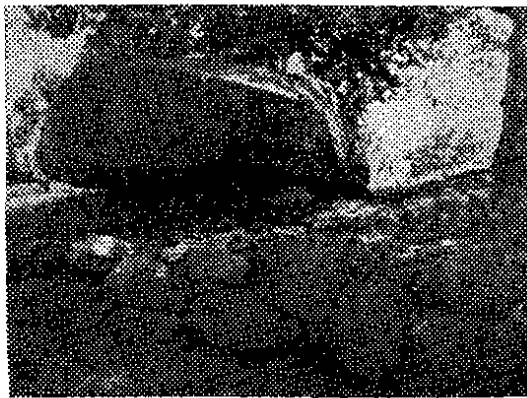
## 二. 遺蹟의 構造

### A. 地形 및 外形

長有面茂溪里는 金海邑西南方 約六杆地點에 있으며 洛東江 江口 델타 地域의 西端에 位置하고 있다. 卽 洛東江을 건너 멀리 釜山의 龜峰山을 望見 할 수 있으며 釜山까지의 直線距離는 約 20 杆밖에 안된다. 그리고 茂溪里後面 卽 西側에는 바로 金海의 神魚山·鶴峯으로부터 南走하는 山줄기가 다가서 있고 그 山줄기는 茂溪里뒤를 迂廻하여 洛東江 江口쪽으로 東出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茂溪里는 金海邑과 마찬가지로 洛東江 델타를 逆U字形으로 둘러싸은 丘陵地帶가 平地와 接觸하는 境界線上에 位置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地理的條件은 梁山에서도 마찬가지며 우

리는 金海나 梁山에 있는 原史時代의 貝塚사이에 共通된 立地條件을 찾아볼 수 있고 이 茂溪里支石墓의 境遇도 이러한 原史時代遺蹟의 立地條件과 連關시켜 考察할 수 있을 것 같다. 이 點은 뒤에서 다시 論하기로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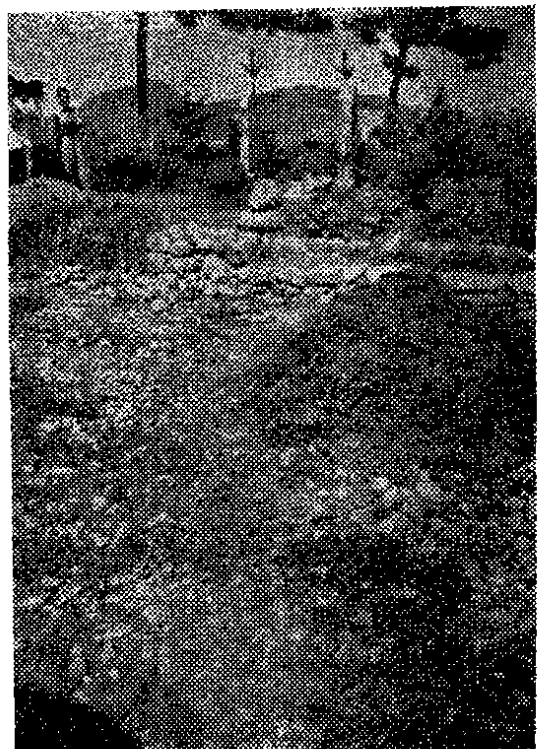
茂溪里部落은 長有面事務所所在地이나 그리 크지 않은 農村이며 논밭으로 된 沖積平地위에 있고 솔나무, 감나무, 槐木 같은 것이 粗生하고 있다. 支石墓가 있는 許氏家는 이 部落西北端에 있으며 이 位置에 20餘



(圖 1)

미터 間隔을 두고 元來는 두개의 支石墓가 있었던 모양이다. 다만 後說하다싶이 許氏庭園에 있던 一墓는 일찍이 石材로 使用하기 위해 破壞滅失되어 버리고 現在는 그 東南方에 있는 또하나의 支石墓가 남아 있을 뿐이다(圖 1).

石室이 發見된 곳은 至今 깨끗이 整地되고 그위에 石室의 墓石 두개를 멘히르 처럼 세워 놓고 있는데(圖 2) 이 地域은 人家에 둘러쌓여 一見 明瞭하지 않으나 中央이 돌우라진 小圓丘狀을 이루고 있고 頂部의 路面으로부터의 高는 적어도 1미터假量은 될것같다. 이 小圓丘는 直徑約 10미터 假量되며 그 全域에 걸쳐 시골길에 깔린것 같은 모난 자갈돌이 깔려있었다(圖 2). 發掘된 石室은 바로 이 小圓丘의 頂上部中央部에 있었다고 한즉 元來의 形態는



(圖 2)

마치 시베리아에서 보는 낮은 쿠르간 같은 封土墳形을 가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이것이 支石墓가 아니고 一種의 積石塚이 있는가 하는 問題가 생기고 그것이 確實히 上石이 없었더니 만큼 支石墓라고 斷定하는 것은 無計일 것같아 朴敬源氏도 支石墓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竪穴石室墓라고 한것같지만 이 무덤은 上石이 破壞滅失된 支石墓라고 보는 것이 좋을듯 하다. 왜냐하면 南韓에서 支石墓의 上石이 耕作 또는 石材使用을 目的으로 破壞되는 것은 우리가 現在도 種種 보는 바이며 그러한 現狀은 옛날에도 마찬가지였으리라고 생각된다. 또 이 石室墓 바로 20餘미터 東南方에는 上石을 가진 支石墓가 存在하고 그 上石위에도 破壞하기 위해 구멍을 뚫다가 말은 痕跡이 남아있다. 그뿐아니라 이 支石墓도 路面보다 돌우라진 封土形垜地 위에 있고 여기도 자갈돌이 無數히 깔려 있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許氏가 정말 모르고 있는지 또는 알면서도 못다하고 했는지는 모르나 이 자리에는 元來는 上石이 있었던것이 途中에서 滅失되어버린 것이라고 믿는 바이다. 萬一 정말 옛날부터 上石이 없었던 것이라면 이것은 一種의 積石塚이라고 할 수 있으며 매우 興味있는 問題거리가 되겠지만 南韓에서의 積石塚은 뒤에서 다시 論及하겠지만 春川泉田里것 以外에 確實한 것이 없고보니 이러한 南式支石墓가 積石塚에 連關될 可能性은 있으나 이 茂溪里것이 바로 積石塚 그 自體라고 하기에는 證據가 不充分하다. 上石下에 자갈을 깔고 그 全體가 小封土처럼 돌우라진 것은 大邱大鳳洞에서도 볼 수 있었다. 卽 同地區第二支石墓의 外形은 다음처럼 描寫되어있다.

撐石(上石)下에는 特殊한 支石이 없고 그저 撐石下 全面에 걸쳐 20乃至 40cm의 川石을 쌓고 있다. 積石의 範圍는 撐石을 中心으로해서 約 5미터 四方에 퍼졌고(中略) 中央은 若干 높아져서 四面으로 얇게 傾斜하였으며 마치 積石塚의 形狀을 이루었는데 그 最高所에 撐石을 安置한 外觀을 나타내고 있다.(藤田 : 1938 : 84)

또 뒤에서 言及하겠지만 여기서 얼마 떠러지지 않은 昌源郡態南面外洞里에서 1929년에 石劍, 石鏃, 土器等을 낸 石室墓도 外形은 「亂雜하게 石塊를 쌓은 石塚 비슷한 隆起며 위에는 거의 흙이 덮여 있지 않았다.」(有光: 1959: 65—66)고 되어있다.

나는 以上과 같은 여러 條件으로 보아 이 茂溪里石室墓는 單純한 積石塚이나 石室墓가 아니라 元來는 圖(1)에서 보다 싶은 典型的南式支石墓였다고 推測하는 바이다.

## B. 地下構造

石室墓를 直接 觀 것은 許氏의 夫人과 그 아들이었다고 하는데 筆者가 現地에 갔을때는 그 아들은 없고 어머니 밖에 없어 그의 말하는 것은 그 아들보다 덜 正確하고 曖昧하다고 느꼈지만 그래도 마침 함께 發掘狀況을 求景했던 部落民 二, 三人이 있어 그들에게서 들은 말을 綜合하여 다음과 같은 發掘經過를 綜合할 수 있었다.

卽 이 돌갈린 隆起地帶를 整地해서 庭園으로 만들기 위해 위에 있는 돌을 모두 벋겨서 치웠더니(그돌의 分量이 宏壯히 많았다 한다) 그밑에서 긴 돌이 세개가 並列해서 나왔다. 이 돌들은 石室의 天井石이 있을 때 모두 圖(2)에 ←표를 한 것이 그것이며 이 地方에서 나는 粉岩이고 向右것이 第一東쪽에 있든 것, 向東것이 第一西쪽에 있든 것이고 中央것은 至今 땅위에 橫置되어있다. 卽 그들의 말에 依하면 天井石三개는 東西方向으로 並列되어 그밑에 있는 亦是 東西主軸의 石室을 덮고 있었던 것이다.

却說 天井石을 들어내니까 그밑에 사람 머리만큼이나 한 川石으로 房처럼 쌓은 것이 나왔는데 그안에는 아주 부드럽고 고운 흙이 가득히 차 있었다. 그레 그흙을 살 살 파내니까 바닥 자갈돌을 깔은 곳에서 第一먼저 石鏃한개가 發見되었고 이어서 그 附近에서 上記한 一括遺物들이 나

왔다고 한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는 石室의 正確한 사이즈나 깊이에 대해서 當初부터 쏠혀 無知하였기 때문에 아무런 아이디어가 없고 그저 四壁의 길이는 사람 하나 들어갈만 하였고 자갈이 깔린 바닥에 섰을 때는 地表에서부터 사람한길가량 되었다는 것을 記憶할 뿐이었다. 또 遺物의 出土位置에 대해서도 쏠혀 캄캄하였다.

그러면 以上の 모든 細部에 對해서 憶測을 하기 前에 筆者보다 훨씬 먼저, 또 아마 어머니가 아니라 그 아들에게서 情報를 들었음이 分명한 朴敬源氏의 報文을 먼저 볼 必要가 있다. 朴敬源氏의 이 石室에 對한 說明全文은 다음과 같다.

〔竪穴石室…石室의 平面은 長 7·5尺(2·3미터假量), 幅四尺(1·2미터)의 넓이로 底面에는 밤자갈(栗石)을 約一寸(3센치)의 두께로 깔았고 四方의 側壁은 自然石으로 쌓고 天井은 自然板石 三개를 세로 並列하여 덮었다. 石室의 깊이는 計測할 수 없었으나 大略地表面에서 3·4尺(一미터) 程度였다고 하며 石室의 長軸은 正東에서 東北向으로 若干 틀어졌는데 그 東端에서 彩丹土器 一個分の 破片과 石鏃, 銅鏃, 管玉等이 發見되었고 石室의 中央部位에서 磨製石劍이 「손잡이」를 東向하여 發見되었다고 한다. 아마 屍體는 東方을 頭位로 하여 安置되었고 石劍은 그의 右手部位에 副葬된 것인듯 하다〕(朴敬源：1962：234)

이렇게 朴氏가 얻은 情報에 依하면 石室의 長은 2·3미터, 幅은 1·2미터 깊이는 地表下 1미터假量이 된다. 그런데 現在까지 남아있는 天井石을 보면 第一石이 地下에 파묻힌分을 計算해도 長 2미터假量이고 最大幅 0.6미터, 두께 0.2미터, 第二石은 全長 1.5미터, 最大幅 0.6미터, 두께 亦是 0.2미터, 第三石 亦是 最大長 2미터 程度에 最大幅 0.6미터, 두께 0.2미터이며 朴氏가 들은대로 이 天井石들을 石室위에 橫置하지 않고 세로 縱置하여도 그 石室의 長은 第二石의 最大長인 1.5미

터 보다 작고 全幅은 最大幅인 1.8미터 以上으로 될 수 없다.

도리어 이三石을 우리들이 普通 보는데로 石室 위에 橫架하였을때 石室의 最大長은 三石의 幅을 合한 1.8미터, 最大幅은 第二石의 最大長인 1.5미터로 될 수 있으며, 그러야만 石室의 長軸이 東西로 된다. 卽나는 現存하는 天井石을 證據로하여 發掘者들의 말을 물리치고 이 石室의 長은 1.8미터에서 兩端 돌걸칠곳을 若干 除한 1.6미터頃, 幅은 1.5미터에서 天井石이 든든하게 兩壁에 걸치기 위해 必要한 都合 4~50센티를 除한 1미터 程度였다고 보는 바이다. 그리고 깊이에 對해서는 元地表로부터 바닥까지가 사람한길(卽 1.5~6미터)程度였음을 是認할때 (이點은 삼질할때 한걸되더라는 數三人의 共通된 證言에 依함) 그 1.5~6미터에서 最上層積石層의 깊이(大略 3~40센티程度) 또 天井石의 두께 20센티를 除하면 1미터가 될까말까하는데 支石墓石室로서는 大邱의 例를 보아도 0.6미터 程度가 普通이니 그렇게 보면 最上部의 積石層 두께가 좀 더 컸던모양이다.

何如튼 이 石室은 1.6(長)×1.0(幅)×0.6미터(깊이) 程度의 矩形石室로서 人頭大의 둥글둥글한 川石(現存)을 쌓서 四壁을 만들고 그 바닥에는 작은 자갈을 깔고 위에는 板石三枚를 橫架한 것이라고 알 수 있다. 그리고 四壁을 쌓은 川石의 自然石임은 틀림없으나 天井石들은 精誠들여서 다듬지는 않았으나 厚·幅이 모두 같고 또 그 形態로 보아 必要한 사이즈에 가까운 돌을 採石해가지고 大略이라도 修整한것임을 推測케하는 바이다.

遺物의 出土位置에 對해서는 筆者는 그저 바닥에서 주셨다는것 以外에 아무 知識을 얻을 수 없었기 때문에 朴敬源氏의 들은바를 그대로 받아드리는 수 밖에 없다. 卽 石室의 東端에서 石劍以外的 遺物이 나오고 石劍은 劍把를 東向하고 中央部에서나 왔다고 한다. 考古學에 對해서는 全然 門外漢이며 出土位置나 遺物의 方向等에 對해서 아무 關心이 없을

部落民들의 所言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困難하지만은 朴敬源氏推測대로 이 埋葬된 主人公은 東枕을 하고 있었음이 틀림없을 것이다.

### 三. 發見遺物

前言한 바와 같이 이 支石墓에서 發見된 遺物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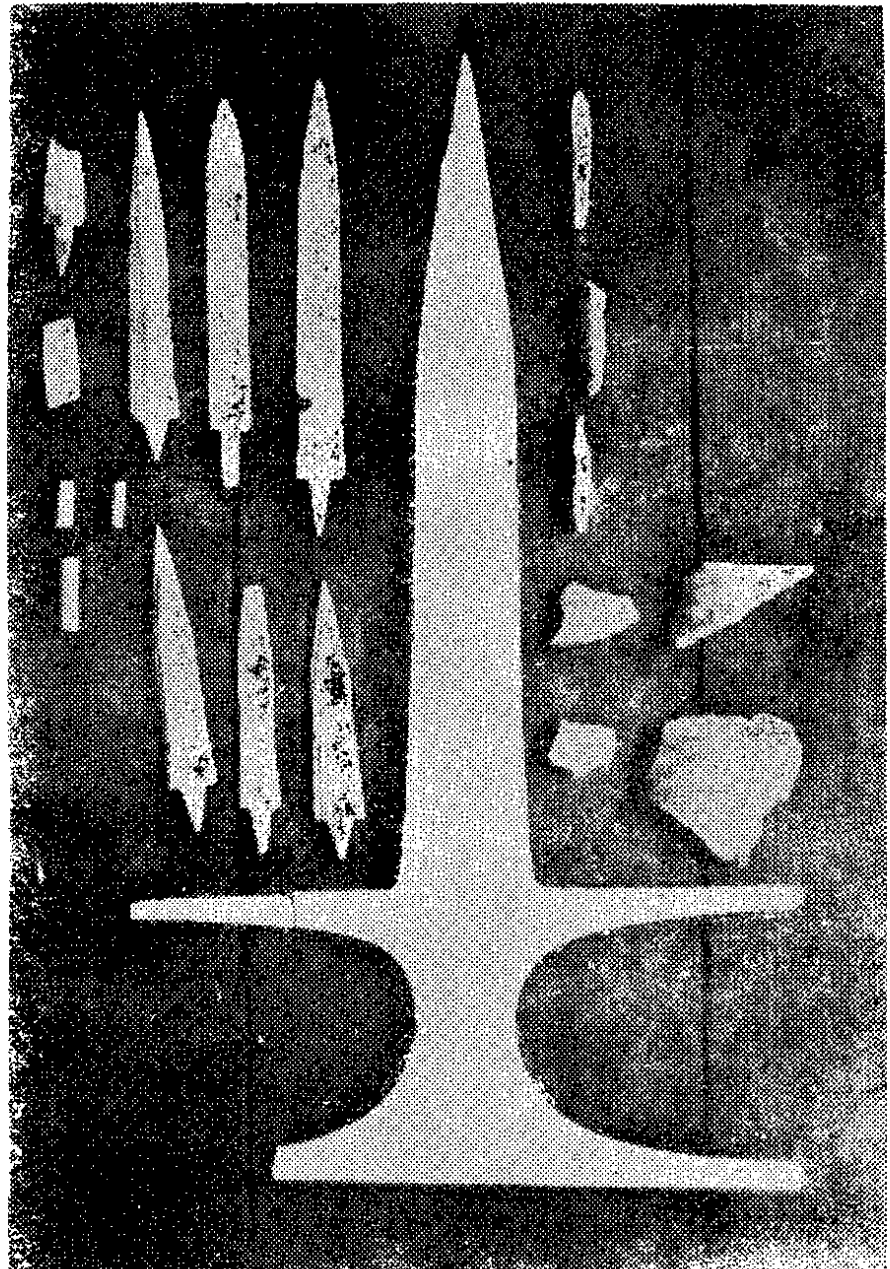
- 磨製石劍 一
- 磨製石鏃 八
- 管玉 三
- 土器片 四
- 靑銅鏃 三

그러면 다음에 이 遺物의 하나하나에 대해서 項을 나누어 考察해 보기로 한다.

#### (1) 磨製石劍

(3圖 및 4圖 參照)

黃白色으로 風化된 粘板岩에 黑色石理가 文樣처럼 나와 있다. 全長 46cm 의 長大한 것이며 劍把가 11.5cm 로 꼭 全長의 4分之1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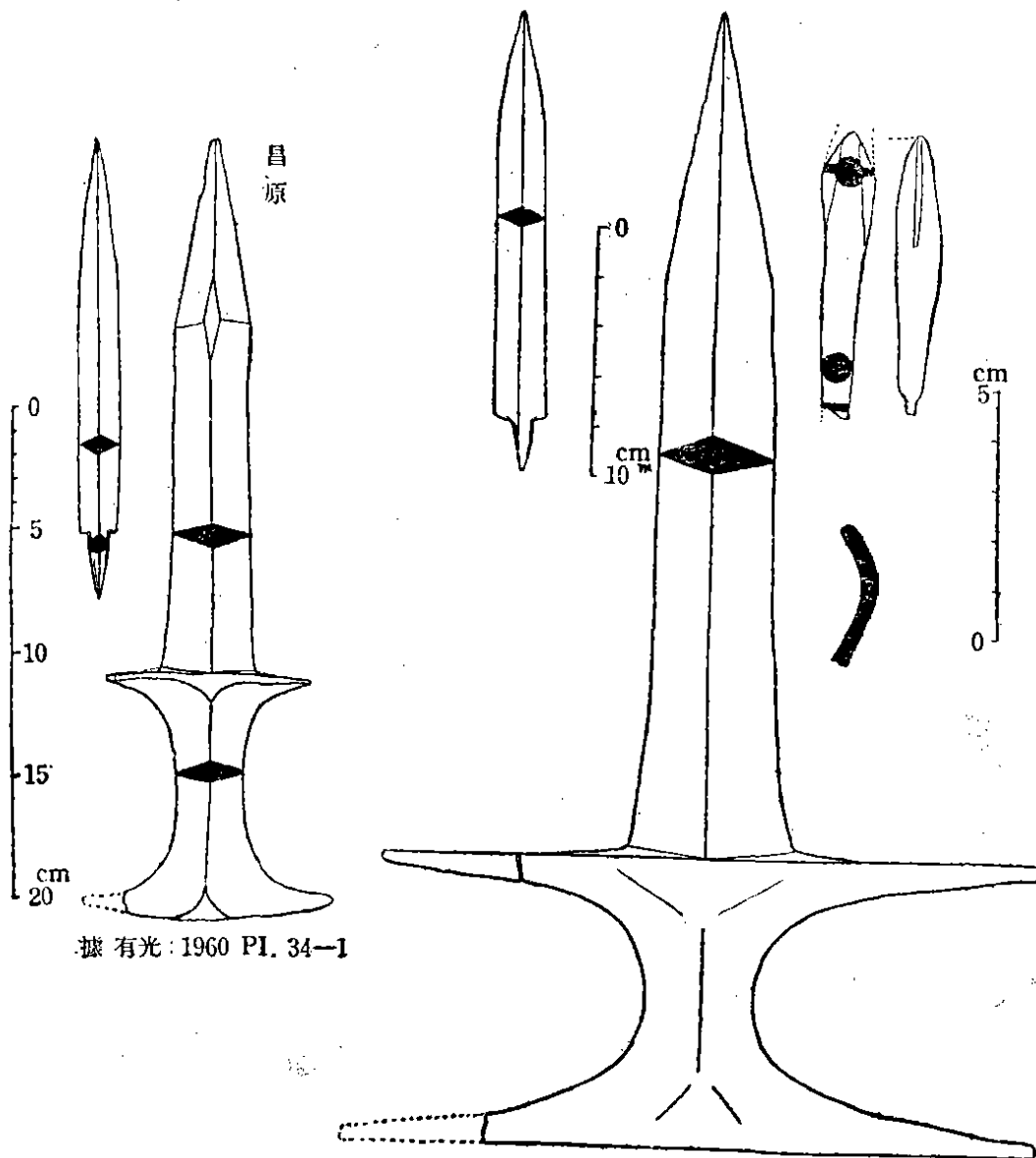
(圖 3)

圖 4 의 昌原熊南石室墓出土의 石劍에서 보다싶은 劍把가 全長의 三分之



一程度의 것에 比하면 劍把가 짧아지고 笄長이 길어진 것을 一見 느낄 수 있다. 이렇게 四等身이라할까 劍把가 짧고 笄部가 긴 石劍은 다른例도 있지만 石劍으로서는 軟弱感을 주며 더욱 그것이 實用器아닌 儀器임을 느끼게 하고 있다.

于先 笄部의 形態에 있어서 劍鋒가까이가서 角을 보이며 꺾어져 劍鋒部가 長二等邊三角形처럼 된 것이 눈에 띄는데 이것은 바로 隣接한 昌原의 石劍에서도 圖(4)에서 보는바와 같이 더욱 顯著하다. 이러한 形式의 鋒은 慶州, 清道出土品에 1,2例가 있고(有光:1959 p1. 22의 6. 33의 2)



據 有光:1960 Pl. 34-1

(圖 4)

他地方에는 없는 것을 보면 그것은 嶺南式이라고도 할수 있을 것 같다. 특히 그러한 三角鋒形式石劍이 日本의 對馬島(有光 1959, p1. 35의 1)나 北九州(同書 p1. 36의 2)에서도 發見되고 있는 것은 이 磨製石劍文化의 傳播를 생각하는데 좋은 데이터가 된다.

劍把는 所謂一段柄式인데 一見 그 長大한 鐔部와 把頭部에 놀라게 된다. 그 上下 斗出部の 길이는 거의 같으며 27cm, 至今 一端이 꼭 같이 부러져 把頭部破片은 佚失되고 있는데 切斷面으로 보아 發掘時 不注意로 의에서 한쪽을 밝은 것 같다. 그런데 이러한 鐔 및 把頭의 左右에 의 斗出은 圖(4)의 昌原石劍에서도 程度는 다르나 같은 傾向을 볼수 있고 이러한 極端的形式의 石劍은 至今까지는 昌原一金海樣式이라고도 할수 있을 것 같다. 이러한 斗出은 結局은 石劍의 自然的인 形式化 또는 儀器化에서 오는 結果라고 보아야할 것이며 形式的으로 가장 後來樣式임은 틀림없을 것이지만 나는 여기서 細形銅劍中에 그러한 長大한 斗出된 把頭가 있는 것은 指摘해 두고 싶다. 卽 日本山口縣久津에서 出土된 劍把가 달린 銅劍에는 劍把頭에 左右로 길게 一直線으로 뻗힌 斗出部가 있다(島田 1632, 卷頭圖版). 銅劍에서의 이러한 斗出이 곧 石劍에 依해 模倣되었다고는 速斷할 수 없지만 何如든 彼此間에 무슨 連關이 있을 것 같다.

## (2) 磨製石鏃

完形 6 破片 2 都合 8 個分이 있다. 中 두개는 小形이지만 나머지는 細長한 有莖柳葉形이며 各各 18.8cm, 16cm, 14.5cm, 12.5cm, 11.5cm, 11cm 의 길이를 가지고 있다. 石質도 石劍과 같고 鏃身의 全形도 石劍의 刃部와 恰似하며 이 石劍이나 石鏃이나 모두 同一製作地 또는 石器工場에서 만든것이 틀림없다. 그런데 石劍에서도 갈거니와 石鏃에 있어서도 茂溪里것과 隣接한 昌原것이 꼭 같으며(圖 4) 그 두 石器群은 工場은 或是 달를지도 몰라도 金海一金海地區의 同一 石器圈에 屬하는 地域에서

製作되었음이 틀림없다. 그런데 이 地帶에서의 粘板岩產地는 馬山—晉州니까 茂溪里石器는 도리어 昌原地方에서 만들어졌을 可能性이 많다.

細長한 石鏃은 咸鏡道地方에서도 나오고 있지만 이 嶺南鏃과는 다르며 또 여기에는 小形것도 二例가 있지만 江原道式의 菱形鏃과도 다르다. 何如튼 이러한 特히 長大한 石鏃은 慶尙道에서도 다른 地域에서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으며 石劍과 함께 昌原金海式이라고도 命名할 수 있을 것 같다.

### (3) 管 玉

淡綠色凝灰岩製이며 이러한 凝灰岩은 慶尙南道一帶의 慶尙系新羅統分布地域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 原石의 正確한 原產地는 알수가 없다. 金海郡도 分布地帶에 包含되지만 이것이 바로 茂溪里所産이나 製作이 아님은 거의 틀림없다. 石器와 함께 他地에서 製作된 것이 貿來된 것이라고 보아야 하겠다.

管玉의 크기는 各各 3cm, 2cm, 1.8cm며 直徑은 各各 0.8cm, 0.6cm, 0.5cm로서 直徑 0.8cm 짜리에서 穿孔徑이 0.4cm를 보이고 있다. 穿孔은 兩端穿孔이며 金海貝塚甕棺에서 靑銅器와 함께 나온 碧玉과 같은데 金海것은 세개가 모두 길이 2cm 또는 그 未滿이며 茂溪里것의 第一 큰 것보다 작다. (樞本 1953 : 15)

우리나라서는 이러한 管玉은 石器時代부터 있으며 그 發見例를 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 1. 咸北慶興郡堆基面松坪洞貝塚

管玉 2個 長 3cm, 2.2cm 直徑 0.9cm, 0.8cm 碧玉製(博物館陳列品圖鑑第 6)

#### 2. 平北江界郡漁雷面 箱形石棺

管玉 27個 碧玉製 大長 2.15cm 徑 0.82~0.6cm 小長 1~0.6cm 徑 0.4~0.35cm(有光 1941)

#### 3. 江原道春川郡新北面泉田里 積石塚

管玉 7個 碧玉製 長 1.2~0.7cm 徑 0.45~0.4cm (有光 1938)

4. 江原道江陵郡注文津橋項里土中에서 重石製 劍把頭石과 함께 碧玉製管玉 8個(元來는 10餘個 長 0.9~0.53cm 徑 0.3cm 程度(有光 1938))

5. 慶南金海會峴里貝塚 甕棺(銅劍과 함께)

碧玉製 3個, 長 2cm~1.94cm, 徑 0.1~0.65cm (樞本 1953)

管玉은 三國時代古墳에서도 發見되며 金冠塚에서는 碧玉, 瑪瑙, 유리製品들이, 金鈴塚에서는 瑪瑙製品만이 22個나 나오고 있다. 모두 길이 2—3cm 程度인데 이렇게 三國時代로 들어가면 瑪瑙製가 많아지는 것이 注意된다. (金冠塚 報告: 102) (金鈴塚 報告: 84)

何如든 우리나라서는 管玉은 石器時代부터 古墳時代까지 오래 愛用되었으며 古墳時代의 例로 미루어보면 그 管玉들은 頸飾玉으로서 使用되었음이 分明하다.

材料上으로 보면 石器時代는 碧玉製가 壓倒的이고 三國時代에는 瑪瑙製로 變하는데 報告書에 나타나는 所謂 碧玉이라는 것이 岩石名으로서의 碧玉(Jasper)을 꼭 말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저 碧色이라 해서 碧玉이라고 命名했는지를 알 수 없다. 다만 咸北松坪洞것 많은 寫眞으로보아도 碧玉임이 틀림없고 金海會峴里것도 色이 暗綠色이라고 하니 碧玉임이 分명한것 같다. 그런데 우리 茂溪里것은 實은 凝灰岩製인데 이것은 말하자면 碧玉代用品이라고 할 수 있지만 前記한 所謂 碧玉中에는 이러한 凝灰岩製도 섞여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碧玉製管玉은 우리나라 初期金屬文化의 影響을 받고 이러나는 日本의 彌生時代에서도 많이 나타나는데 그 前期에는 長 1—3 cm의 小形이지만 中期로 들어가면서 次次로 長大化해 5 cm 되는것도 나오고 또 材料도 中期부터는 滑石製品이 많아진다고 되어 있다(世界考古學大系 日本 II 彌生時代).

한편 滿洲의 赤峰의 紅陶文化住居址에서 長 3 cm 程度의 「淡綠色 弱玉」같은 돌로 만든 管玉이 나오고 있는데 이 淡綠色管玉은 아마 凝灰岩

이 아닌가 생각된다.(濱田·水野 1938 : 35) 여기 赤峰紅山後文化는 시베리아系 靑銅文化의 影響을 받고 있으며 赤峰紅山後文化가 다시 前記한 江界箱形石棺文化와 靑銅製品 및 石棺의 樣式을 通해 結合되고 있음은 이미 有光數一教授가 指摘한바 있다.(有光 : 1941 : 169—171)

그런데 이와 같은 管玉이 바로 그 시베리아의 미누신스크의 靑銅器時代 쿠르간에서 發見되고 있는 것이며(J.Gaul 1943 : 175) 우리는 우리나라의 管玉이, 뒤에서 다시 言及하겠지만, 石棺, 積石塚 그 墓制와 함께 所謂 시베리아의 北方系靑銅文化에 由來하고 있음을 알수 있다.

#### (4) 土器片

土器片은 現在四片이 있을뿐이지만 元來는 二〇餘片이며 接合하면 完器가 될수 있을것같았다는 發掘者들의 말이지만 無知로 因해 모두 버려져 四片만이 남은것인데 器底部는 없으나 口緣部가 一片 들어 있는 것은 實로 千萬多幸이다(第四圖).

이 土器片들은 모두 酸化鐵을 表面에 칠하고 磨研한 所謂 塗丹磨研土器로 나의 이른바 韓國紅陶이며 精選된 胎土를 쓰고 器壁厚는 0.3 cm밖에 안된다. 圖에서 보다싶이 口緣部가 外反하고 있는데 그 形態나 두께가 既往의 發見例인 昌原郡石室墓出土品, 金海會峴里石室墓出土器 또는 大邱大鳳洞支石墓出土品の 口緣部와 같으며 以上 三例가 亦是 모두 같은 紅陶이며 또 時期的으로 서로 連關되어 있기때문에 우리 茂溪里土器도 原形은 小形の 圓底長頸甗으로서 그 頸部가 下廣上狹의 特色있는 器形이였으리라고 믿어진다.

韓國의 紅陶는 南滿洲의 紅陶가 들어온 것이 分明한데 그 分布는 咸北과 慶尙南北道에 局限되어 있는것이 特殊하다. 于先 咸鏡道로 들어와 東海岸을 타고 嶺南地方으로 들어온것 같으며 嶺南地方에서는 石器時代末期에 盛行을 본것이 分明하다. 그리고 이 紅陶가 다시 바다를 건너 日本으로 들어가 거기서 彌生土器發生의 直接·祖型이 되었다(藤田 :

1948 : 82—84). 또 對馬島에서는 箱形石棺속에서 觸角式銅劍, 靑銅器, 赭色壺, 高杯等과 함께 이 紅陶가 發見된 例가 있다(增田 : 1955).

(5) 靑銅鏃(圖 3 右端 三個, 圖 4 右端 上)

三個가 모두 綠化가 甚해 原形을 거의 알아 볼수 없게끔 되어 있다. 至今 現長各各 5.7cm, 4.6cm, 4.5cm 를 나타내고 있는데 中 第一 큰 5.7cm 짜리(圖 3 上端, 圖 4 右上)는 鋒部가 一部 없어지기는 하였으나 葉部 및 兩翼部를 남기고 있어 原形을 그나마 알아 볼수 있다. 卽 斷面 圓形의 鏃身에 兩翼이 달리고 比較的 긴 柄部가 끝에서 斷面 扁平矩形으로 된 形式이다. 銅質은 매우 나쁜듯 하며 더구나 所謂 靑銅病이 걸려 만지면 가루가 떠러질 程度다. 마치 宋이나 高麗時代의 銅錢이 녹슬었을때 같은 質感이다. 이 銅質은 全南高興郡 支石墓에서 나온 「粗惡한 銅質」(有光 : 1956 : 62)을 聯想시키며 優秀한 白銅製品과는 달리 地方에서 만들어진 것임을 推測케 하고 있다. 다른 하나의 銅鏃(圖 3 銅鏃中 下端)도 完形을 알아 볼수 없을 程度지만 鏃柄部가 圓筒形이며 銅質도 꼭 같아 亦是 어느 같은 工場에서 만들어진 兩翼形鏃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세번째의 鏃(圖 3 中央)은 銅質이 前二者와는 달리 表面에 古銀色 나는 녹이 部分的으로 남아 있고 一見 白銅으로 된 細形銅劍이나 中國鏡에서 보는 따위의 銅質임을 알수 있다. 다만 그래도 녹이 甚하고 脫落되어 原形을 알수 없는 것이 遺憾이다. 그러나 아마 비슷한 形態의 鏃이었음은 틀림없으리라고 믿어진다.

以上の 三個의 銅鏃은 이 時代의 銅鏃으로서 唯一한 實例이며 더구나 그것이 支石墓에서 石器, 土器와 함께 나온 것은 매우 重要的 事實이라 하겠다. 그런데 中國에서는 銅鏃이나 鐵鏃은 모두 三角鏃이며 그런것은 樂浪古墳에서도 少數지만 發見되고 있다(藤田, 梅原1947 : 15). 또 有名한 平北 涇原龍淵洞의 鐵製品一括遺物속에 들어 있는 鐵鏃도 三角鏃이며 樂浪에 앞서는 時期의 中國式鏃으로서 好例이다.(梅原, 藤田 1947 :

p. 11)

이렇게 中國式鍬는 三角鍬인데 對해 우리 茂溪里鍬는 兩翼鍬임이 對照的인데 江原道杆城에서 發見된 銅鍬鎔范(梅原, 藤田: 1947 p1. 40 No. 185)을 보아도 그것은 三角鍬이 아니고 兩翼鍬이다.

그런데 滿洲遼東半島의 牧羊城遺蹟에서는 銅鍬의 거의 全部가 中國式 三角鍬인데 그속에 少數의 兩翼形鍬이 들어있다(牧羊城: fig. 8). 그러면 이 兩翼鍬는 어디서 왔는가 하는것이 問題가 되는데 前記한 시베리아의 미누신스크에서는 銅鍬의 全部가 兩翼鍬이며 그中에는 우리 茂溪里것처럼 鍬身이 逆刺가 없고 全形이 다이아型(菱型)을 이룬것이 있다(J. Gaul: 1943 Pl. XIX No. 58). 特히 이 다이아形은 미누신스크 쿠르간 第一期에 屬하고 同 第二期에 들어가면 兩翼下端이 뾰족하게 逆刺로 되는 形式이 出現하고 있는 것이 注意된다. 卽 우리 茂溪里銅鍬는 미누신스크 쿠르간 第一期形式임을 할수 있다. 쿠르간 第1期の 實年代는 大體로 西紀前 8 世紀頃前後라고 看做되고 있는데 勿論 이 年代가 그대로 우리 茂溪里에 들어맞는 것이 아님은 말할 것도 없다. 何如튼 茂溪里 文化가 管玉, 銅鍬를 통해 멀리 시베리아 靑銅器文化의 傳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興味있는 事實이다. 이點은 또 墓制 그 自體에 있어서도 認知되는 바이며 이것은 뒤에서 다시 論하겠다.

#### 四. 茂溪里 文化의 性格

以上 出土品에서 보다싶이 이 茂溪里文化는 根本的으로는 南韓 特有의 南方式石墓社會의 그것이며 그것을 石劍과 石鍬이 代表하고 있다. 南韓에서 南方式支石墓를 營造한 사람들이 바로 磨製石劍文化人이었음은 有光教授가 指摘한바와 같다(有光: 1959: 69—70). 그런데 이 磨製石劍人들은 支石墓以外에도 箱形石棺, 箱形石室 같은 墓法을 使用하고 있다. 有光教授는 箱形石棺 또는 石室 같은 無封土墳 위에 巨石을 놓은

것이 바로 南方式 支石墓이며 따라서 그러한 無封土墳이 支石墓보다 形式的으로 앞선다고 보고 있다(有光: 1959: 70). 우리 茂溪里石室墓도 實은 그러한 無封土墳이라고 볼수 도 있겠지만 構造에서 말한것처럼 나는 이 무덤은 上石이 滅失된 支石墓라고 斷定하였다.

그런데 여기서 한가지 생각할 것은 이러한 石棺이나 石室이 南韓에서 自生한 것이 아니고 北韓에서 퍼져 내려온 것이라는 點이다. 또 그 北韓의 墓制는 南滿洲를 通해 시베리아의 靑銅器時代墓制와 連結되고 있다. 우리는 南式支石墓가 南韓에서 發生하였다고 생각하여왔으나 1945年以後의 北韓에서의 새로운 發見은 北式支石에서 南式에로의 轉換이 北韓에서 始作된것임을 알려주고 있다(金元龍: 1952 a. b). 卽 平南江西郡普林面臺城里에서도 黃州郡沈村里에서도 南式支石墓群이 發見되었고(李: 1955) 또 黃海道鳳山郡 御水區解放村의 一南式 支石墓에서는 細形細劍一口가 發見되었다.(李: 1960)

卽 北韓에서 石棺 또는 石室을 地下構造로하는 所謂南式支石墓가 北式支石墓의 아이디어를 받아 偶然히 發生하고 그것이 南으로 와 南쪽에서 大盛行을 본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石棺, 石室이 支石과 結合해서만 南下해온 것이 아니고 支石 發生以前에도 내려왔으리라고 생각되지만 至今까지의 例가지고는 南式支石墓時期以前으로 올라갈수 있는 石室이나 石棺은 없다. 도리어 그러한 石棺이나 石室은 支石墓期에 盛行해서 三國時代高墳의 主體構造로 發展해가고 있다. 特히 아직 報告文으로서 發表된 것은 없지만 金海郡大渚面 또는 蔚山郡內에서 大群을 이루고 存在하는 無封土小石室墓는 三國時代初期 土器를 내고 있으며 三國時代初期에 가서 支石墓의 上石이 없어지고 漸次로 三國時代高墳으로 移行해가는 過程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기때문에 나는 石棺이나 石室墳은 거의 全部가 支石墓의 主體構造였으며 上石없이 發見되는 例도 茂溪里처럼當初에는 上石이 있었던 것이라고 보고 싶다.



그런데 여기서 한가지 생각나는 것은 前出한 江原道春川郊外泉田里의 積石塚이다. 이 積石塚은 學術的으로 發掘은 되지 않았지만 小石室을 川石으로써 小封土처럼 덮은것이며 이에 隣接해서 北方式支石墓도 있다 (金元龍 : 1961 a) 이 石室속에서 石劍, 石鏃, 管玉이 나온 것은 앞에서 말한바와 같다. 卽 이 石室을 가지는 積石塚도 石劍, 石鏃을 통해 南쪽의 支石墓와 連結되고 있다. 特히 管玉의 存在는 그것을 더욱 強調하면서 이 石棺, 石室 모두가 北方系임을 말하고 있다. 또 構造條에서 말한것 처럼 茂溪里石室墓는 小丘처럼 된 封土에 자갈돌이 많이 깔려 마치 積石塚 같은 外觀을 가지고 있었음은 泉田里積石塚과 比較해 더욱 兩者間의 連絡을 말해주고 있는듯 하다. 이렇게 茂溪里의 支石墓는 實은 根本的으로는 墓制上 시베리아의 靑銅器文化에 由因하고 그로부터 南播해 내려온 一末端임을 알수 있다. 이點은 여기서 나온 미누신스크式 兩翼銅鏃을 통해서도 알수 있다. 여기서 나온 紅陶도 그것이 元來는 南滿洲에서 시작해서 咸鏡道를 통해 東海岸을 타고 南下한것도 앞에서 말한바와 같다.

茂溪里의 石劍은 그 形式이 特別하며 細長한 有莖鏃과 함께 나는 이것을 金海—昌原式이라고 假命名해 두었다. 그리고 主要石器製作地로서 馬山, 晉州地方을 推測하였다. 다만 여기 石器들은 모두 形式上 매우 發達한 것이며 틀림없이 副葬品이나 其他 儀器로서 製作된것이며 時期的으로도 後期에 屬하는것이라고 짐작된다.

그런데 南韓一帶의 特有한 磨石劍이 細形銅劍을 模倣한 것이라는 點은 이미 常識으로 되어 있으며 이 細形銅劍人들은 北쪽에서 내려오는 外來人이며 그들은 土壙墓 라는 特殊形式의 墓制를 쓰고 있음을 二次大戰後의 北韓에서의 發見에 依하여 차차 알게 되었다. 나는 慶州入室里나 九政里같은 靑銅器—括出土遺蹟도 이러한 土壙墓였다고 推測한 일이 있다(金元龍 : 1961 b). 또 같은 論文에서 이 細形銅劍文化는 華北長城

東쪽 熱河地方에서 北方式靑銅器文化와 中國戰國時代文化가 合쳐서 생긴 것이며 이 細形銅劍人이 樂浪郡設置以前에 卽 西紀前 3~4 世紀頃에 平安道로 들어가 漸次 南下했고 特히 樂浪郡設置以後에 大量으로 南쪽 特히 嶺南地方으로 갔다고 推測하였다. 有光教授가 指摘하다 싶이 磨製石劍은 이 銅劍人社會와 在來의 支石墓人社會의 對立하는 두 異質文化속에서 생겨난것이다(有光:1959). 卽 支石墓社會와 銅劍社會는 서로 交流가 있으면서도 本質的으로는 서로 다른 文化圈에 屬하고 있다. 支石墓社會도 本質的으로는 靑銅器文化지만 그것은 銅劍보다 앞서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시베리아系靑銅文化의 末流이며 後에 들어온 南滿洲의 細形銅劍文化 卽 中國이 加味된 靑銅文化와는 다른것이다. 나는 石劍과 함께 나오는 石鏃들은 아마도 시베리아系 兩翼鏃을 祖型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바이다. 卽 磨製石鏃이나 石劍은 똑같이 靑銅器를 본따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한가지 注意할 것은 이 支石墓文化가 그렇게 시베리아靑銅文化의 末流라고는 하였지만 그것은 全的으로 시베리아系文化가 아니고 여기에 또 華北石器時代의 文化 卽 特히 龍山文化의 影響도 받고 있다는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나는 여기서 이 點에 對해서 까지 細論하려고 하지 않는다.

## 五. 結 言

茂溪里石室墓에 埋葬된 男子는 小積石塚 같은 外觀을 가진 主體構造인 矩形石室에 東枕으로 伸展葬되었고 허리에는 石劍을, 목에는 管玉으로 된 목거리를 두르고 있었던 모양이다. 그의 周邊에는 따로 土器와 石器 그리고 銅鏃이 副葬되어 있었다.

石劍과 石鏃은 馬山, 晉州近處의 石器工場에서 만들어졌으리라고 생각되는 特殊한 形式이며 石鏃은 細長하고 石劍은 鐔部와 劍把頭가 모두 72cm 나 되는 긴 길이로 斗出하고 있으며 바로 隣接한 昌原外洞里的의 石

室墓(이것 亦是 支石墓) 石劍이나 石鏃과 비슷한 傾向을 보이고 있어 나는 이러한 特殊하게 形式化한 石劍을 金海—昌原式이라고 假命名해 보았다.

管玉은 凝灰岩製이지만 兩翼形鏃과 함께 그것이 北韓, 南滿州를 通해 멀리 시베리아 미누신스크靑銅器文化와 連結되고 있다. 卽 이 石室墓 그 自體가 石棺墓와 함께 예를 들면 平北江界의 시베리아式靑銅器를 내는 箱形石棺과 連結되며 그것이 또 미누신스크의 쿠르간文化로 連結되는 것이다.

이 시베리아系 靑銅文化는 勿論 華北地方의 石器文化와도 섞이고 있으나 그 뒤에 들어오는 細形銅劍, 土壙墓文化와는 本來 異質的인 것이며 兩者는 서로 交流하고는 있으나 그 社會는 一種의 分離된 存在였다고 생각된다. 磨製石劍은 前者 卽 石棺, 石室, 支石墓人 들이 細形銅劍을 倣製한 것이지만 石鏃은 아마 自己네가 本來 가지고 있고 또 未熟한 技術이나 直接 鑄造할 수 있었던 시베리아式 兩翼銅鏃을 倣製한 것 같다.

이 支石墓의 主人公이 살고 있던 時代는 支石墓時期後期 아마 西紀後 2·3世紀頃이 아닌가 推測된다.

### 引 用 書 目 (가나다順)

J.H. Gaul

- 1943 "Observations on the Bronze Age in the Yenisei valley, Siberia."  
Papers of the Peabody Museum of American Archeology and  
Ethnology, Harvard University. pp. 149—186.

樞本杜人

- 1953 「金海貝塚의 甕棺と 箱式石棺」 考古學雜誌 43—1 pp. 1—21.

金元龍

- 1961 a 「春川泉田里의 支石墓積石塚」 美術資料 4號 pp. 14—16

- 1961 b 「十二台營子の 青銅短劍墓——韓國青銅器文化의 起源問題」  
歷史學報 16輯 pp. 109—121.
- 1962 a 「南式支石墓의 發生」考古美術 3—1 pp. 14—16.
- 1969 b “Dolmens in Korea” Korean Research Bulletin No. 16 pp.  
1—11.

增田精一

- 1956 「對馬發見の 丹塗磨研土器」Museum 3—1 pp. 26—28.

朴敬源

- 1962 「慶尙南道内の 最近出土遺物」考古美術 3—8 pp. 233—237.

島田貞彦 小川五郎

- 1932 「長門向津具久津出土の飾柄銅劍」史林 17—1 pp. 123—131.

有光教一

- 1938 「朝鮮江原道の先史時代遺物」考古學雜誌 28—11 pp. 709—729.

- 1941 「平安北道江界郡漁雷面發見の一箱式石棺」考古學雜誌 31—33  
pp. 162—171

- 1959 朝鮮磨製石劍の研究 京都大學考古學叢書 第二冊

梅原末治 藤田亮策

- 1947 朝鮮古文化綜鑑 第一冊

李進熙

- 1955 「戰後朝鮮考古學の發展」考古學雜誌 45—1

- 1960 「解放後に於ける朝鮮考古學の發展」考古學研究 22

濱田耕作 水野清一

- 1938 赤峰紅山後 東方考古學叢刊甲 第6冊

原田淑人 駒井和愛

- 1931 牧羊城 東方考古學叢刊甲 第2冊

藤田亮策

- 1648 「朝鮮の石器時代」朝鮮考古學研究 所收 pp. 43—139.

※ 이 論文을 쓰는데 있어서 岩石에 關해 國立서울大學校 師範大學의 李大聲 教授의 敎示를 받았다. 厚意에 對해서 깊은 謝意를 表하는 바이다.